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CNN Business: 내일 연방정부 일자리 보고서의 기대 사항은
- WSJ: 미 기업 재무 책임자들, 소비 심리 약세 등 리스크 점검
- WSJ: 저소득 근로자들에 최근 경제 상황 좋은 편

#### [미국 금융]

- Bloomberg: 증시 상승세... 파월과 유럽은행 총재 발언 후

#### [미국 대선]

- WSJ: 바이든, 트럼프와 비교해 법인세 인상 추진

#### [오일]

- CNBC: 유가 하락 ... 시장이 미국 원유 재고와 금리 전망 무게둔 탓

#### [미중 경제]

- Bloomberg: 미 에너지 장관, 중국의 미 전자 시장 영향력에 경고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AI인재 수요 증가... 타 기술 분야 채용 공고는 줄어
- CNBC: AI 산업, 원자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
- CNBC: UA항공사, 모로코 및 콜롬비아 취항하고 중국 서비스 확대
- CNBC: Salesforce, 의사를 위한 새로운 AI 도구 발표

#### [AI와 비즈니스]

- The Economist:기업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방법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 [미국 경제]

#### **CNN Business: What to expect in Friday's jobs report**

##### **내일 연방정부 일자리 보고서의 기대 사항은**

- 오는 금요일 정부에서 발표하는 미 일자리 증가 보고서가 1월의 보고서 (35만3천개 증가) 보다 감소한다고 해서 놀라운 일은 아니다.
- 전문가들은 2월에 20만개의 일자리를 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
- 2월의 일자리 추정 증가수가 확인될 경우 노동 시장은 역사상 양호한 성장을 연속해서 이루게 된다. 사실 1월에는 날씨와 계절적인 조정 변수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12월과 1월 보고서는 과장된 성장을 보여 주었던 측면도 있다.
- 2월의 일자리는 실제 노동시장에서의 일들을 보다 신뢰성있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 CNN Business 기사

### WSJ: CFOs Aim to Reconcile Strong Economic Data, Weary Consumers 미 기업 재무 책임자들, 소비 심리 약세 등 리스크 점검

- 미 기업 재무책임자들은 강한 미국 경제 상황 속에서도 미 소비 심리가 약세를 보이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
- 각종 데이터는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휘발유 가격 및 그로서리 등 모든 물가가 가계를 압박하는 상황에 긴장하고 있다.
- 월스트리트 연례 CFO 네트워크 서밋에 참석한 미 CFO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가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증권거래 위원회가 채택한 새로운 기후 정보 공개 규정,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회, 그리고 기업들이 금리 상승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WSJ 기사

### WSJ: For Lower-Income Workers, This Economy Is Looking Pretty Good 저소득 근로자들에 최근 경제 상황 좋은 편

-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자산이 임금 상승 등 과거 수년처럼 늘지는 않겠지만, 강한 경제, 은퇴, 대면 업무에 대한 혜택, 그리고 일자리를 빼앗는 인공지능에 대한 상대적인 노출 감소 때문에 줄어들거나 뒤로 후퇴하지도 않을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진단했다.
- 앞으로 여러 산업에서 일자리 성장이 느리고 소비자 지출이 작년보다 약화되겠지만 경제학자들은 침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Stocks Rise Ahead of Powell; Euro Falls After ECB: Markets Wrap

#### 증시 상승세... 파월과 유럽은행 총재 발언 후

- 오늘 증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입장을 바꾸어 빠르면 올해 2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추정 때문이다.
- 트레이더들은 파월 의장의 올해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서 너무 늦은 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이다. 유럽중앙은행 총재인 크리스티 리가르드 총재도 “정책 입안자들인 올해 6월에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 한편 오늘 목요일 12:00pm 현재 S&P 500은 0.87% 오른 5,149.20 그리고 나스닥은 1.34% 상승한 16,237.08이며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08% 내

린 4.11%를 기록중이다.

Bloomberg 기사

### [미국 대선]

#### **WSJ: Biden Pushes More Corporate-Tax Hikes to Draw Contrast With Trump**

##### **바이든, 트럼프와 비교해 법인세 인상 추진**

-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목요일 연두교서에서 대형 기업체의 세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맞붙게 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되는 선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 바이든의 방안은 법인세 28% 확대, 미국 회사들의 해외 수익에 대한 세금 확대 등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도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방안 중 많은 아이디어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 추가 제안으로는 작년부터 시행된 회사 최저세를 15%에서 21%로 늘리고 최고 임금 임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 공제 능력 제한 등이 포함돼있다.

WSJ 기사

### [오일]

#### **CNBC: Oil prices fall as market weighs U.S. inventory data, interest rate outlook**

##### **유가 하락 ... 시장이 미국 원유 재고와 금리 전망 무게둔 탓**

- 이번 목요일 유가가 상승세를 끝내고, 하락했다.
- 서부텍사스산원유(WTI) 4월물 가격은 33센트(0.42%) 하락한 배럴당 78.80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 5월물 선물은 32센트(0.39%) 하락한 배럴당 82.64달러이다.
- 수요일 미국 원유와 글로벌 벤치마크는 1% 이상 상승했다. 파월 의장이 의회에서 금리가 정점을 찍었고 올해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앙은행이 불확실한 경제 전망을 감안해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말한 이후이다.
- 에너지 가격은 예상보다 적은 미국 원유 재고 증가와 휘발유 비축량 감소에도 영향을 받았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CNBC 기사

### [미중 경제]

## CNBC: China could flood U.S. electric-vehicle market with its offerings, Energy Secretary Jennifer Granholm warns

### 미에너지 장관, 중국의 미 전자 시장 영향력에 경고

- 수요일 Jennifer Granholm 미 에너지 장관이 중국이 미국 전기 자동차 시장을 잠식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비슷한 우려를 제기한 지 몇 주 후이다.
- “우리는 현재 제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미국 산업에 중국이 잠식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Granholm 장관은 말했다.
- General Motors를 비롯한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축소하고 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위협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 중국 자동차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에 대략 500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하여 일본을 제치고 2023년 세계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됐다.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AI Talent Is in Demand as Other Tech Job Listings Decline

### AI인재 수요 증가... 타 기술 분야 채용 공고는 줄어

-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 전문가 채용을 늘리고, 그들의 기술 능력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 메릴랜드 대학 연구진에 따르면 2022년 12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신규 AI 채용 공고가 42% 증가했다. 이는 2022년 말 출시된 ChatGPT 열풍에 일부 영향을 받은 것이다.
- 하지만 전반적인 기술 인재 시장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인다. 2022년 12월에 비해 1월의 신규 IT 채용공고는 31% 감소했다.
- 구인구직 플랫폼 Indeed에서도 AI 관련 채용 공고와 전반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채용 공고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WSJ 기사

## CNBC: The AI industry is pushing a nuclear power revival — partly to fuel itself

### AI 산업, 원자력 발전에 대규모 투자

- 기술 기업과 실리콘 벨리 억만장자들이 ‘인공지능’을 인센티브로, 원자력 에너지 투자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 AI Now 협회의 전무이사 Sarah Myers West는 “대규모 언어 모델인 GPT 스타일을 검색 엔진에 통합할 경우, 표준검색보다 환경비용이 5배나 더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의 성장 속도라면 일부 새로운 AI 서버가 매년 85 TWh 이상의 전력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일부 소규모 국가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초과하는 양이다.
- 한편 생성형 AI의 빠른 발전과는 달리, 원자력 에너지는 강한 규제로 발전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원자력 에너지 발전이 AI 및 빠른 기술 성장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CNBC 기사

### **CNBC: United Airlines launches Morocco, Colombia flights, beefs up China service**

#### **UA항공사, 모로코 및 콜롬비아 취항하고 중국 서비스 확대**

- UA항공사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콜롬비아로 그리고 뉴저지 뉴왁 공항에서 모로코로 새로 취항하는 노선을 시행한다.
- 그리고 항공편을 증편할 지역에는 상하이, 홍콩, 서울, 포르투갈이 포함됐다.
- 한편, 많은 미 항공사들이 국내선보다 국제선에서 더 높은 매출을 올렸다.

CNBC 기사

### **CNBC: Salesforce announces new AI tools for doctors**

#### **Salesforce, 의사를 위한 새로운 AI 도구 발표**

- 세일즈포스는 목요일 의료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AI 솔루션을 발표했다. 해당 솔루션은 일부 수동 관리 작업을 자동화하여, 의사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이 된다.
- 이른바 Einstein Copilot: Health Actions는 의사가 대화형 언어로 AI를 사용하여 진료 예약, 환자 정보 요약, 의뢰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이른바 Assessment Generation는 수동 작성 및 코딩 없이도 설문조사와 같은 건강 평가를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두 기능 모두 의료 기관이 의료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데 사용하는 'Einstein 1 Platform'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CNBC 기사

## **[AI와 비즈니스]**

## The Economist: How businesses are actually using generative AI 기업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방법

Open AI가 가장 정교한 인공지능 모델인 GPT4를 출시한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미국 기술 산업의 시가총액은 절반 증가하여 6조 달러의 주주 가치를 창출했으며, 일부 기업의 경우 매출 증가와 함께 주가 상승을 이뤄냈다.

그러나 대기업의 AI 소프트웨어 매출은 여전히 미미하다. 생성형 AI의 실제적 도입에 기업들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심스러운 접근조차도, 다가올 사무직 업무의 변화를 암시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The Economist 원문

번역/요약본

### [보고서]

## 연준 매파 "올해 美 기준금리 1~2차례 인하 필요" 전망

### 월가,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금리에 미칠 여파 주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내에서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고위 인사가 경제 지표가 탄탄한 만큼 기준금리를 올해 0.25%포인트씩 1~2차례만 인하하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한 행사에서 "(자신은) 작년 12월 올해 2차례 인하 입장이었다"면서 "지표를 보면 그때보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지난해 12월 당시 입장이거나, 한차례 적을 수 있다고 본다.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지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mailto: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